

2019.4.1월 - 2019.5.31일 금

**365** 명에게 드리는 **특별혜택!**

**연금365**

매년 최대 **66만원** 세액공제!

**[해설]**  
유튜브 증권방송  
금융당국 규제에  
증권사 부글부글  
03



**Economy**

코스피 2233.45 (0.00)	코스닥 767.85 (0.00)
금리 (연고채 3년) 1.73 (0.00)	환율 (원-달러) 1139.40 (0.00) (12일)

# No만 하는 노조 몽니에... 엔진 식어가는 후입계

- 르노삼성**  
노조파업에 부산공장 일시 중단
- 한국지엠**  
신설법인 단체협약 개정 갈등
- 기아차**  
노조, SP2 등 美 생산중단 요구



지난달 2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르노삼성자동차노동조합과 금속노조, 민주노총이 르노삼성차 부산공장 노조 파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투쟁 결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판매 부진으로 위기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노동조합까지 '몽니'를 부리고 있어 설상가상의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노동조합의 입김이 세진 가운데 완성차 노조들은 사측에서 수용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 무리한 요구를 들고 나오고 있다.

기아차 노조의 경우 해외에서 생산해 현지 판매하고 있는 차량의 인기가 높아지자 국내 공장에서 생산해 수출하라는 압박을 넣는가 하면, 르노삼성노조는 '노사 합의를 통한 인력 전환'을 주장하며 회사 경영진의 고유권한인 인사권과 경영권을 침해하는 등 노사간 갈등의 골은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은 노사 갈등이 장기화 됨에 따라 부산공장 가동을 멈출 예정이다. 계속되는 노조의 부분파업에 공장을 일시적으로 셧다운시키기로 한 것. 또한 부산공장의

일부 물량은 일본 규슈공장으로 이관됐다. 결국 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회사는 물론 협력업체 등 지역 경제도 붕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르노삼성은 오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단체휴가 사용을 정하고 공장가동을 중단한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포함한 휴가 기간은 총 5일이다. 회사는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휴가라고 설명했지만, 업계는 계속되는 부분파업과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위한 휴식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고 노사간 긍정적인 대화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노조가 요구하는 인사권의 경우 르노그룹 산하 어떤 나라에서도 노조가 인사권에 개입한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르노삼성의 부산공장 생산물량 감축은 불보듯 뻔하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앞서 닛산은 올해 SUV 차량인

'로고' 위탁 생산량을 전년 대비 4만 2000대 줄인 6만대로 결정해 르노삼성에 통보했다. 1만8000대는 미국 판매량 감소에 따른 규모지만, 2만4000대는 부산공장 파업 장기화에 따른 생산 불안정으로 추산된 결과다.

노사 갈등으로 침몰의 위기에 처한 기업은 르노삼성만이 아니다. 지난해부터 신설법인 설립을 둘러싼 극한 대립을 이어온 한국지엠 노사는 올 초 연구개발(R&D) 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의 분리 이후에도 좀처럼 갈등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신설법인 단체협약 개정을 둘러싸고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노조는 신설법인에 정리하고 일방통보, 징계범위 확대 등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측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중국형 싼타페 '성다'를 소개합니다. '제 4세대 성다' 출시 행사에서 현대차 및 베이징현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베이징현대 판매본부장 문성곤 상무, 베이징기차고분유한공사 리더런 부총재, 베이징현대 총경리 문용현 부사장, 베이징현대 천홍량 동사장, 현대자동차 연구개발본부장 알버트 비어만 사장, 현대자동차 중국사업총괄 이병호 사장, 베이징현대 류위 상임부총경리, 베이징현대 판징타오 판매본부장. (관련기사 5면) /연합뉴스

## 바이오 금융시대 열렸다... 정맥인증으로 인출

국민은행 '손으로 출금서비스' 시연

통장이나 신분증은 물론 현금카드나 비밀번호 없이도 예금 인출 등 은행거래가 가능한 시대가 열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은행의 모든 창구나 금융자동화기기(ATM)에서 정맥인증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바이오인증 서비스의 파급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KB국민은행의 '손으로 출금서비스' 시연행사에 참석해 "그간 비대면 거래 위주의 서비스 개선이 이뤄져 혜택

을 누리지 못하던 고령층 고객의 편의도 증진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KB국민은행이 내놓은 '손으로 출금서비스'는 정맥인증으로 본인확인을 한 경우 통장, 인감이 없이도 예금을 찾을 수 있다. 기존 통장 기반의 거래 관행을 깨고 새로운 개념의 창구지급 프로세스를 도입한 것으로 특히신청도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정맥인증을 활용한 예금 인출은 불가능했다. 은행업감독규정에서 창구거래를 할 때는 통장 또는 인감이 없이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지점장 승인을 받은 경우

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지만 매 건별로 승인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서비스도입은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으로 가능했다.

당국은 "바이오(정맥)인증방식이 보안성 심의 등을 거쳐 신뢰성이 높은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에 (지점장의) 포괄승인을 받아 예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사항에 관한 기록과 보관 등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전제로 했다.

(3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1@

## “증권거래세 0.25%로 6월3일부터 0.05%p ↓”

홍남기 부총리  
비상장 주식은 내년부터 인하  
상속공제 사후기간 완화 검토



안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원 미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상장주식 증권거래세가 6월 3일부터 인하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2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에 대한 세율은 현행 0.3%(농어촌특별세 포함)에서 0.25%로 0.05%포인트 낮추고, 코넥스 주식의 경우 0.3%에서 0.1%로 0.2%포인트 내린다.

홍 부총리는 비상장 주식의 경우 올해 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 증권거래세(0.5%→0.45%)를 0.05%포인트 인하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10년으로 규정된 기업 상속공제 사후 관리 기간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일률적으로 10년으로 돼 있는 기간을 7년으로 줄이거나, 상한을 7년으로 정하되 공제액에 따라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

만인 중견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는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이 경영한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 후 10년 동안 지분을 유지(가업용 자산의 20% 이상 처분 금지)하고 가업에 종사해야 하는 등 사후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이 기간을 단축한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업종변경 허용 범위를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한다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구상에 관한 검토가 "거의 마무리 수준"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정식 발표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상속공제 대상을 규정한 '매출액 3000억원 미만'과 공제 한도액 기준인 '500억원'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 삼성 직무적성검사 '극강의 난이도'

국내의 7곳서 실시... 내달 합격자 발표

삼성이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 채용 시험을 치렀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 계열사들은 14일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과 미국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7개 지역에서 삼성직무적성검사(GSAT)를 실시했다. GSAT는 삼성그룹이 만든 필기시험으로, 삼성그룹 취업을 위해 필수로 통과해야 하는 절차다.

올해 시험도 언어논리, 수리논리, 추리, 시각적 사고 등 4개 과목에서 110분간 출제됐다. 오전 9시부터 10시 55분까지 115분간 시간이 주어졌다. 삼성 계열사들은 GSAT 합격자를 가려낸 후 다음달까지 임원면접과 직무역량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GSAT 난이도는 '역대 최고'로



14일 서울 단대부고에서 열린 삼성직무적성검사를 마친 응시자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어려웠다는 전언이다. 시험 종료 직후 이날 정오쯤부터 온라인 취업 카페 등에는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했다는 후기가 잇따랐다. 실제로 적지 않은 수험생들이 시각적 사고 영역인 '종이접기'를 비롯해 많은 답안을 공백으로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용 기자 juk@